

## 8. 近江八幡・오미하치만

### 1. 地域概観・지역개관

豊臣秀次は、1585(天正13)年に豊臣秀吉から近江国43万石を受領し、八幡山に城を築いて、本能寺の変により主を失った安土のらびとの移転先ともなる城下町を建設しました。今日の近江八幡市です。

近江八幡市には「朝鮮人街道」と呼ばれる道があります。この道は、織田信長が安土城築城の際に、京都までの道を結んだことによるとされ、その後、関ヶ原の戦いに勝利した徳川家康がこの道を通り、徳川将軍家も京に向かう際に通ったことから、御所街道や上洛街道ともいわれています。その道を朝鮮通信使が通行することから「朝鮮人街道」とも呼ばれています。

朝鮮通信使の10回に及ぶ江戸行きの間、近江八幡では往路、復路ともに本願寺八幡別院(金台寺)で正使、副使など主だった人々が昼食をとり、他の随行員は京街道筋の家々で食事をしたとの記録から、町中を挙げての一大行事であったことがわかります。

饗応料理の準備もさることながら、道の整備、並木の植樹、宿となる寺や家の修理、茶屋やトイレの設置、人や馬の手配など、受け入れにあたっての労苦は並大抵のこと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도요토미 히데쓰구는 1585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오우미지방 43만석을 받아 하치만에 성을 쌓고, 혼노지의 난으로 주인(오다노부나)가)을 잃은 아즈치성 조카마치에서 생활해 온 사람들의 이전 장소가 될 조카마치를 건설했다. 오늘날의 하치만시다.

하치만시에는 조선인 가도라고 불리는 길이 있다. 이 길은 오다 노부나가 아즈치성 축성 시에 교토까지의 길을 한길로 연결한 것에서 유래한다. 그 후 세키가하라의 전투에서 승리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길을 지났고, 후대 도쿠가와 장군이 교토로 향할 때 지나다녔기 때문에, 고쇼가도 또는 조라쿠가도라고도 불리었다. 이후 조선 통신사 길을 이용하면서「조선인가도」라고도 불리게 되었다.

10번의 조선통신사 에도방문 중 오미하치만에 서는 올라갈 때, 돌아올 때 모두 본원사 팔만 별원(혼간지 하치만 베쓰인) 금대사(킨다이)에서 정사, 부사, 종사관 등 삼사가 점심 식사를 하고, 다른 수행원은 교가도 주변의 집에서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통신사 대접은 하치만 마을 전체가 동원된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접대 음식 준비와 함께 길 정비, 가로수 식수, 숙소가 되는 절이나 집 수리, 찻집이나 화장실 설치, 사람이나 말 준비 등 대접을 위한 부담이 보통이 아니었다.



本願寺八幡別院金台寺 · 혼간지 하치만 베쓰인 키타이지

## 2. 関連人物・관련인물

### 従事官李邦彦・종사관 이방언

李邦彦(イ・バンオン)は第8回朝鮮通信使(1711-1712)の来日時通信使従事官として来日しました。広島県福山市鞆の浦にある福禅寺に立ち寄った際、寺内にある対潮楼からの眺めを一番美しい景勝地だと賞賛しました。鞆の浦には眺望をたたええた李邦彦の扁額『日東第一形勝』が今も後世に伝えられています。

近江八幡市では文化交流の記録として、本願寺八幡別院蔵「朝鮮通信使従事官李邦彦詩書」が残されています。近江八幡市では2016年に本願寺八幡別院に所蔵されている李邦彦の「詩書」が市の指定文化財に登録され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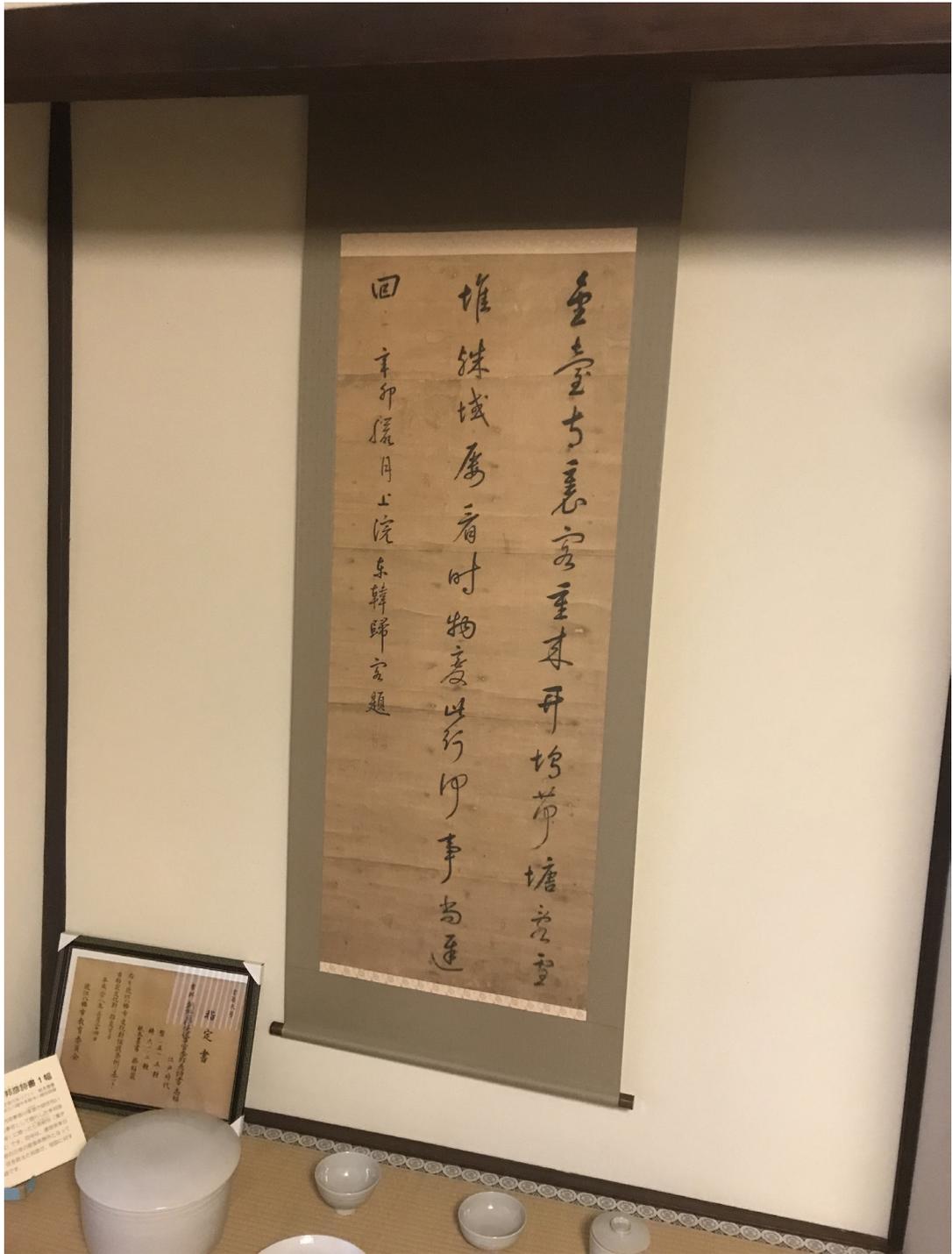
詩書は、1711(正徳元)年12月、第8次通信使が帰国する際、同寺に立ち寄った李従事官が詠んだ七言絶句の詩で、「金台寺(本願寺八幡別院)を再び訪れると、竹垣に雪がうず高く積もっている。移りゆく時間はしばしば私たちの見るものをかえる。この旅で私たちはなんと長い時間を過ごしているであろうか」と綴られています。

이방언은 제8회 조선 통신사 종사관으로서 방 일했다.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 토모노 우라에 있는 복선사(후쿠젠지)에 들렀을 때 절 안에 있는 대 조루(다이초로)에서 본 전망을 동쪽에서 가장 좋은 경승지라고 칭찬했다. 토모노우라에서 전망을 칭송한 이방언의 「닛토제일형승(일동제일형승)」이라는 편액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오미하치만시에서는 문화교류의 기록으로, '조선통신사 종사관 이방언 시서'(혼간지 하치만베츠인 소장)가 남아있다. 오미하치만시는 2016년에는 이방언의 "시서"를 시지정 문화재로 등록했다. 시서는 1711년 12월 제8차 통신사가 귀국하면서 이 절에 들린 이방언이 읊은 칠언 절구의 시로 '금대사(혼간지하치만베츠인)를 다시 찾아오니 대나무 울타리에 눈이 수북이 쌓여 있다. 흘러가는 시간은 종종 우리가 보는 것을 바꾼다. 이 여행에서 우리는 얼마나 오랜 시간을 (이국에서) 지내고 있는 것일까'라고 적혀 있다.



李邦彦の扁額がある「日東第一形勝」福禅寺 対潮楼・일동제일형승 복선사(후쿠젠지) 대조루



第8次 通信使、従事官李邦彦の「詩書」本願寺八幡別院所蔵  
 제8차 통신사, 종사관 이방언의 「시서」 혼간지하치만베츠인 소장

### 3. 疲れ取りの宿・ 숙소

#### 八幡山の宴・ 하치만야마의 연회

当時、近江八幡は「八幡山」と呼ばれ1585(天正13)年、豊臣秀次の城下町として町を開いたとき、その掟書に「八幡山下町中」と記されています。八幡山は、近江八幡の昔日の呼び名でもあったことを物語っています。

1682(天和2)年8月8日、早朝守山を出発した朝鮮通信使の一行は、朝鮮人街道を次の宿泊地の彦根を目指してすすみ昼頃に八幡山に到着。正使、副使、従事官の三使は金台寺で、他は街道沿いの寺院、町屋でそれぞれ昼食を取り、また対馬藩士なども、それぞれ近くの家々にて昼食をとりました。この接待の様子が正に「八幡山の宴」の賑わいを表したものとされます。

本膳には七菜(七種の料理)、二の膳には五菜(五種の料理)、三の膳には三菜(三種の料理)を配膳しました。

##### (1) 熨斗(のし)

本膳が出される前に、まず第一番目に三方に「熨斗」を乗せて出てきます。「熨斗」とは「のしアワビ」のことで、アワビの肉を薄く剥ぎ引き伸ばし、紐のようにして乾かしたものです。これは永続の意味をもち、祝事にはなくてはならない物で、「のしをつける」「のしを添える」と現在でも使われています。

당시 오미하치만은 「하치만산」으로 불렸으며, 1585년 도요토미 히데쓰구가 마을(조카마치)을 만든 당시 공포한 법령에는 「하치만산 아래 마을」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하치만산이 오미하치만의 옛날 이름이었음을 말해준다.

1682년 8월 8일, 새벽에 모리야마를 출발한 조선통신사 일행은, 조선인가도를 따라 숙박지인 히코네를 목표로 이동해, 낮에 하치만산에 도착. 정사, 부사, 종사관의 삼사는 하치만베츠인에서, 나머지는 도로변의 절이나, 상점에서 각각 점심을 먹었다. 쓰시마에서 온 안내역이나 일꾼들도 각각 근처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하치만산의 연회」로 불려졌다.

본상에는 칠채(7종류의 요리) 둘째 상에는 (5종류 요리), 셋째 상에는 삼채(3종류 요리)를 차렸다.

##### (1) 울두(노시)

본상이 나오기 전에, 먼저 첫 번째로 삼사에게 ‘노시’가 올려져서 나온다. 노시란 말린 전복으로, 전복의 살을 얇게 벗기고 잡아 늘여서 끈처럼 만들어 말린 것이다. 이것은 관계를 지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경사에는 없어서는 안 될 물건으로 취급된다. 그래서 「축하한다」라는 상징으로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다.

## (2) 二の膳

- ① 蛸(たこ)
- ② 鮎鱈(あゆすし)
- ③ 貝盛り(かいもり)
- ④ ふくめ
- ⑤ 小桶(こおけ:うるか)
- ⑥ 汁(しる:すまし・鯛・青昆布)

## (3) 三の膳

- ① 羽盛り(はもり)
- ② 舟盛り(ふなもり)
- ③ 辛螺(にし)
- ④ 汁(ふくさ・いりこ)・いも・ごぼう・大根  
・しいたけ

## (4) 五々三本膳

- ① 唐墨(からすみ)
- ② 香物(こうのもの)
- ③ 和交(あえもの)
- ④ 焼物(やきもの)
- ⑤ 蒲鉾(かまぼこ)
- ⑥ 汁(雁・ごぼう・大根・塩松茸・焼麩)
- ⑦ 食(飯)
- ⑧ 丸塩(まるじお)

## (2) 두 번째 상 메뉴

- ① 낙지(문어)
- ② 은어 초밥
- ③ 조개 모듬
- ④ 복의 눈
- ⑤ 작은 그릇(은어의 소금절이)
- ⑥ 국(장국, 도미국, 청다시마국)

## (3) 3번째 상 메뉴

- ① 조류를 이용한 요리(주로 닭, 오리)
- ② 생선회 모듬
- ③ 매운 소라
- ④ 국(복국·멸치국)·감자·우영·무우·표고버섯

## (4) 고고산(553) 본 식사 메뉴

- ① 카라스미(송어 등의 난소를 소금에 절인 후  
천 일 말려 건조시킨 것)
- ② 채소절임
- ③ 무침 나물
- ④ 불에 구운 생선·닭고기 등의 요리
- ⑤ 어묵
- ⑥ 국(기러기·우영·무우·송이버섯·밀개떡)
- ⑦ 밥
- ⑧ 통소금



八幡山の宴の模型・하치만야마의 연회 모형

## 4. 残された遺跡・남겨진 유적

### 近江八幡と朝鮮人街道・오미하치만과 조선인가도

通信使が滋賀県を通った道のりは、京都から大津で昼食休憩、中山道を通り守山で一泊、その後、野洲市の小篠原(行畑)で中山道から分岐した道を通り、八幡で昼食休憩をとりました。そして彦根で一泊し、鳥居本で再び中山道と合流、美濃にはいりました。この小篠原から鳥居本までの約42kmの道が朝鮮人街道と呼ばれています。

元々琵琶湖舟運の港をつなぐ陸路として便利だった道を、信長が幹線道路として整備し、その後、関ヶ原の戦いで勝利をおさめた家康が凱旋した時に通ったという、めでたい道として将軍上洛や外交使節の通行の際にのみ使われたといいます。海外との交流が制限されていた時代、唯一の対等な外交関係があった朝鮮からの外交使節が通ったので、この朝鮮人街道の名前がつけました。接待には、金台寺(本願寺八幡別院)を中心に、朝鮮人街道沿いの寺や商人屋敷が使われました。

통신사가 시가현을 지나간 여정은 교토를 출발하여 오쓰에서 점심과 휴식을 갖고, 나카센도를 거쳐 모리야마에 도착해 1박한 후 야스시의 고시노하라에서 나카센도와 분리된 길을 지나 하치만에 도착해 점심과 휴식을 가졌다. 그리고 히코네에서 1박 후 도리이모토에서 다시 나카센도로 합류하여, 미노, 즉 현재의 기후현으로 들어갔다. 이 고시노하라에서 도리이모토까지의 거리 약42km의 길을「조선인가도」라고 부른다.

원래 비와호의 운송 항구를 잇는 육로를 노부나가가가 간선도로로 정비했다. 그 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이에야스가 개선할 때 지나갔다는 점에서, 경사스러운 길로서 장군이 교토에 갈 때나 외교사절의 통행 때에만 사용되었다. 막부에 의해 외국에 대한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던 쇄국시대에 유일한 외교 관계를 가졌던 조선의 사절단이 지나갔기 때문에, 조선인가도라는 이름이 붙었다. 접대는 금대사(킨다이시)를 중심으로, 조선인가도 주변의 절이나 상인 저택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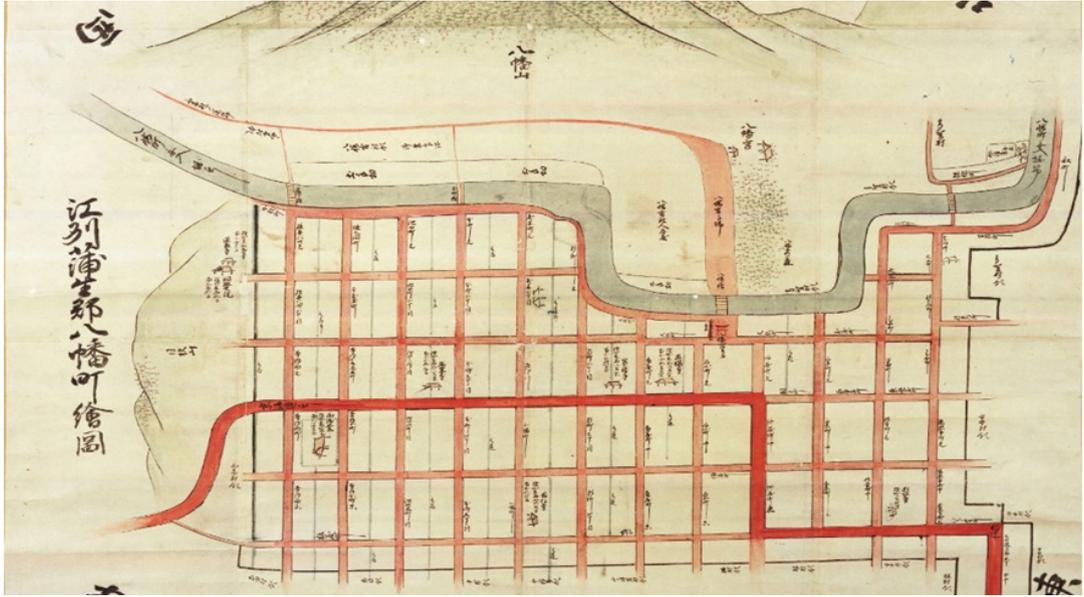


彦根藩領朝鮮人街道修復之図(部分)・히코네번령조선인가도수복도(부분)



【朝鮮人街道とされた集落・조선인가도가된 마을】

行畑・유키하타-久野部・구노베-富波乙・토바오즈-永原・나가하라-日野川・히노가와-仁保橋・니호바시-江頭・에가시라-加茂・가모-小船木・고부나키-八幡町・야와타초-西庄・니시노쇼-安土駅・아즈치역-安土城跡・아즈치성터-南須田町・미나미스다초-安樂寺・안라쿠지-能登川・노토가와-彦根市天満橋・히코네시텐마바시-銀座町・긴자초-立花町・다치바나초-船町・후나마치-鳥居本・토리이모토



近江八幡市蔵「江州蒲生郡八幡町惣絵図」  
 오미하치만시 소장「강주포생군팔번정총회도」



野洲市行畑(中山道と朝鮮人街道の分岐点)・야스 유키하타(나카센도와 조선인가도 분기점) 부근

コラム・칼럼

♣ 泗溟堂(松雲)大師 惟政・사명당(송운)대사 유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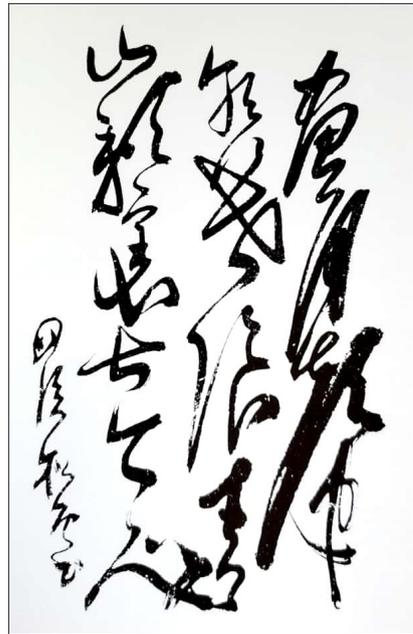
朝鮮時代中期の僧侶。文禄の役の時、僧兵を募集し、西山大師休靜の指揮下で倭軍と戦いました。平壤を取り戻し、都元帥の権慄(クォンユル)と宜寧で倭軍を撃破し、慶長の役の時、蔚山と順天で戦功を挙げました。慶長の役の際、蔚山と順天にて戦功を挙げました。1604年日本へ渡り講和を結び朝鮮人捕虜1400余名を連れて帰国しました。現在、近江八幡市と韓国の密陽市は姉妹都市を結んでいます。その連携のもととなったのは、朝鮮通信使の復活に尽力した松雲大師(惟政)の出身地が密陽市であったことが縁となっています。

조선 중기의 승려. 임진왜란 때 승병을 모집하여 휴정의 휘하에서 왜군과 싸웠다. 평양을 수복하고 도원수 권울과 의령에서 왜군을 격파했고, 정유재란 때 울산의 도산과 순천 예교에서 전공을 세웠다. 1604년 일본으로 건너가 강화를 맺고 조선인 포로 1,400여 명과 함께 귀국했다.

현재 오미하치만시와 한국의 밀양시는 자매도시 교류협정을 맺고 있다. 조선통신사의 부활에 공헌한 사명대사(유정)의 출신지가 밀양시여서 인연이 된 것이다.



泗溟堂(松雲)大師(惟政)肖像  
사명(송운)대사(유정)초상



泗溟堂溟(松雲)大師墨跡(興聖寺藏)  
사명(송운)대사묵적(興聖寺藏)

(大系朝鮮通信使、第1卷.131p・대개,조선통신사 제1권 131p)